Monthly Report
마이다스블루칩배당주식투자신탁제C호

자산운용보고서
2008년 2월

Fund Facts
투자목적

자산의 90%이상을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중 고배당 종목 위주로 투자하여 주가상승 이익과 배당이익을 함께 추구합니다. 보조전략으로 커버드콜전략의 실행을 통한 콜옵션 매도 수입의 축적으로 주가하락 위험을 일부 헤지하면서 추가수익을 얻습니다.

운용개시일: 2004.10.19
펀드규모: 4,273억원(순자산 기준)
총보수: 선취판매수수료1%+신탁보수 연1.7%
환매수수료: 없음

펀드매니저 리포트

지난 2월 한 달간 펀드는 6.39%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, 동 기간 중 종합주가지수는 5.35% 상승하였습니다. 포트폴리오 내 2-3개월 간 하락폭이 컸으나, 최근 시장의 기술적 반등과 함께 특히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보유한 것이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시현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.

[주식시황]
2월 한 달간 시황은, 지난 1월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, 고용과 소비의 감소가 유럽,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전파되는 우려에 의하여 과도하게 조정 받았던 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기간이었습니다. 글로벌 주식시장 침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는 향후 2-3년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, 비이성적으로 과도한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저가매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기술적 반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업종별로는 섬유의복, 전기전자, 전기가스, 통신, 은행, 보험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반면, 화학, 철강, 기계, 의료정밀, 운수장비, 건설, 운수창고, 증권, 서비스업종 등은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.

[주식 포트폴리오]
펀드에서 현물주식은 95%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주식 보유분의 80% 수준은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로 구성합니다.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종목 중 고배당 종목 위주로 구성됩니다. 주식 보유분의 나머지 20% 수준은 중소형 종목 중 엄선한 마이다스 고배당주로 구성됩니다.

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
포트폴리오 중 KCC, GS건설, LG, 현대중공업, 현대제철 등의 수익률이 양호하였습니다. 반면 현대차2우B, 한국전력, SK텔레콤, 한국가스공사, 삼성전자 등은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.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에서는 현대차, 아모레퍼시픽, LG전자우 등을 순매수하였으며, 삼성전자, KT, KCC, 한화 등을 순매도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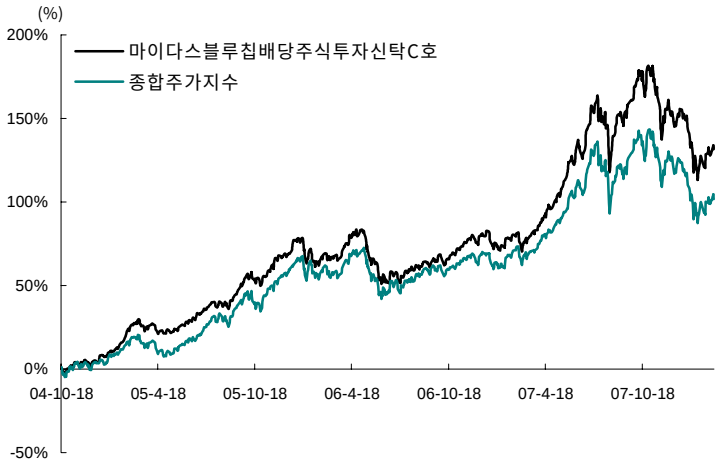
마이다스고배당주
마이다스 고배당주 부문에서는 동양기전, 태광, 대한전선, 웅진홀딩스 등의 수익률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, LG데이콤, LG패션, 현대H&S, 무림페이퍼 등의 수익률은 저조하였

펀드운용실적

구분	기준가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설정이후
블루칩배당주식C호	833.64	6.39%	-9.32%	-7.73%	31.74%	131.70%
종합주가지수	1711.62	5.35%	-10.20%	-8.63%	20.76%	101.78%
초과수익률		1.04%	0.88%	0.89%	10.98%	29.9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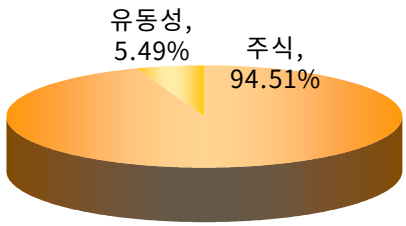
수익률 추이

(2004.10.18~2008.02.29)



※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

포트폴리오 현황



상위보유종목

(순자산총액 비중 52.17%)

(1)삼성전자
(2)POSCO
(3)한화
(4)대신증권우
(5)KCC
(6)한진중공업
(7)GS건설
(8)국민은행
(9)LG전자우
(10)STX조선
(11)LG화학
(12)대한전선
(13)KT&G
(14)한국가스공사
(15)KT
(16)부산은행
(17)삼성엔지니어링
(18)한국전력
(19)현대중공업
(20)LG상사

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,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,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,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